

금호타이어 SPA 내주 체결...박삼구 회장 행보 '주목'

〈주식매매계약〉

더블스타에 9600억 제시...채권단 75% 동의하면 추진 박 회장 계약금 1000억원 마련 여부 인수 의지 바로미터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주식 매매 계약(SPA) 체결이 다음 주 중 이뤄진다.

2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의 SPA 안건을 채권단에 부의할 계획이다. 이후 채권단은 약 1주일 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서면 결의를 통해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결된다.

안건이 가결되면 바로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간 SPA 체결이 이뤄

진다.

더블스타는 우리은행(14.15%)·산업은행(13.51%) 등 8개 채권은행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 42.1%에 대한 인수 가격으로 96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SPA 체결에 앞서 약 한 달간 이어진 더블스타와의 협상에서 채권단은 국내 근로자의 고용 보장 여부, 인수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채권단의 채무 상환 유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건은 우선매수권의 행사 범위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두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매수청구권은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 부자 개인에게 한정된 권리며,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각 경우의 수를 둘러싼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개인 자격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박 회장의 청구권 행사 여부와 최종 인수 여부가 주목된다. 이를 가능할 수 있는 요소가 '계약금 납부'이기 때문이다.

채권단과 우선협상자 간 SPA 체결이

이뤄지게 되면 채권단은 그 즉시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는 박 회장에게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박 회장은 채권단 의사 타진에 맞춰 30일 이내로 청구권 행사 여부는 물론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고, 동시에 최종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내야한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해 온 만큼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계약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느냐다.

따라서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지렛대 삼아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4월 초 안에는 10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

을 마련해야 한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매각 본업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수의 재무적투자자(FI)를 통해 인수 자금 1조원을 마련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호타이어 인수를 마무리할 것 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FI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박 회장의 인수 자금 마련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금호타이어 매각관련 일정을 감안하면 계약금 납부 시점으로 보이는 4월에는 박

회장의 인수 자금 마련 여부는 물론 실제 인수 의지가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앞서 2015년 상당한 출혈을 감수하고 금호산업 인수를 감행했다. 당시 NH투자증권으로부터 인수금액 3500억원 등 5000억원이 넘는 빚을 냈고, 상당수 전략적투자자(SI)로부터 10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인수 자금을 마련했다는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며 "박 회장에게 1000억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계약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구직자 면접 볼 때 평균 5만원 쓴다

구직자들이 면접에 한 번 응시할 때마다 지출하는 돈은 평균 5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 481명을 대상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다.

금액별로 보면 '1만~3만원 미만'(34.1%), '1만원 미만'(18.1%), '3만~5만원 미만'(18.1%), '5만~7만원 미만'(9.4%), '9만~11만원 미만'(5.4%)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단연 '교통비'(55.9%)였다. 이외에 '의상 구입비'(20.8%), '식비'(6.9%), '헤어, 메이크업비'(6%), '숙박비'(2.3%) 등을 꼽았다.

면접 준비 비용이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구직자 10명 중 7명(65.9%)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 중 37.2%는 면접 준비 비용이 부담돼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0.3%는 기업으로부터 '면접비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급받은 면접비는 평균 3만원으로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비를 지급한 기업은 구직자들이 면접을 본 기업의 평균 25%, 즉 4곳 중 1곳이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구직자들이 면접 비용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만큼 면접비를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면접 참석률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면접비 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좋은 인재 채용의 기회 확대와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많이 되는 만큼 지급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로봇청소기 더 작아지고 세지고...
대비 28% 낮아진 높이로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청소할 수 있다. 또 1cm 정도의 얇은 두께의 장애물까지 민감하게 인식하는 '풀루센서 2.0'과 같은 정교한 최첨단 센서들로 장애를 걸림 없이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청소한다.

삼성전자 모델이 2일 2017년형 '파워봇'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 파워봇 신제품은 기존의 일반 로봇청소기 대비 최대 40배 강력한 흡입력과 기존 삼성 파워봇 대비 28% 낮아진 높이로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청소할 수 있다. 또 1cm 정도의 얇은 두께의 장애물까지 민감하게 인식하는 '풀루센서 2.0'과 같은 정교한 최첨단 센서들로 장애를 걸림 없이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청소한다.

〈삼성전자 제공〉

제조업 가동률 하락...풀리지 않는 중소기업 경기

1월 광주 2.5%P·전남 1.9%P 하락...생산량 하락에 부진 전망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하락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동석)는 2일 광주·전남 중소기업계의 3월 경기전망지수(SBHI)가 5개월만에 상승한 88.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14.1포인트나 뛰는 수치다. 지역 업체들의 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9월 87.0을 찍은 뒤 지난 2월 75.6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바 있다. 전국보다는 1.3포인트 낮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로,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78.0) 대비 12.7포인트 증가한 90.7이었으며 전남은 전월(78.0) 대비 14.1포인트 상승한 85.0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73.3)보다 14.5포인트 늘어난 87.8로, 비제조업은 같은 기간 77.4에서 12.0포인트 오른 89.4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업계의 비수기가 끝나는 등 일부 업종의 경기 호전이 기대되고 경기

전망지수가 4개월 내리 하락, 이에 따른 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4.6→88.4), 수출(87.0→95.2), 경상이익(74.4→85.2), 자금사정(71.9→79.9)은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고용수준(95.8→93.7) 전망은 어두웠다.

하지만 지난 1월 지역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어 생산량 하락에 따른 경기 부진이 예상된다.

올해 들어 1월 평균가동률은 광주가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71.1%, 전남이 전월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69.6%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의 장기 평균가동률은 70.7이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02.65 (+11.01)	↑ 금리 (국고채 3년) 1.71% (+0.04)
↓ 코스닥 608.93 (-3.27)	↑ 환율 (USD) 1141.60원 (+10.90)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감소

대형소매점 판매는 증가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율이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6.7% 증가했으나 전월보다는 4.4% 감소했다.

분야별 생산품목 중 자동차, 섬유제품, 의료정밀광학 등은 감소했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식료품 등은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의료정밀광학이 감소했고,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5.3% 증가했다. 전월보다는 7.7%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자동차, 전기장비, 섬유제품 등은 증가했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광학, 1차금

속 등은 감소해 전년 동월대비 6.5% 감소한 반면, 전월보다는 4.5%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지수는 120.1로 전월대비 증가했다.

광주 지역 백화점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5%, 대형마트 판매는 6.9% 각각 증가했다.

1월 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은 1차금속, 화학제품, 금속가공 등은 증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석유정제 등에서 감소해 전년 동월대비 5.1% 감소했다. 전월 대비는 0.4% 줄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석유정제,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은 증가했으나, 1차금속, 음료, 식료품 등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는 0.7%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지수는 112.4로 전월대비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1.1로 전년 동월대비 18.5% 증가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개소

지역 중기인의 숙원이었던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의 전남동부사무소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2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행)은 전남 동부지역의 6만여 중소기업과 5만4000여 소상공인에게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천에 있

는 전남테크노파크 내에 전남동부사무소를 개소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남동부사무소는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등 7개 시·군의 중소기업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 다.

/김대성기자bigkim@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매가 1억1천만

010-7384-7800

동구 수기동 상가 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차 완비

▶ 매가 1억4천 (용 5천)

062-527-7600

상무지구 상가매매

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걸림)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062-527-76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6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매가가 160억 → 최저가 37억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토 48평, 건 160평
서부소방서 1분
4차선 도로 접
▶매가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매가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광산구 송월동 (상가건물)
토 226평, 건 86평
광주 송정역 / 광산구청 1분
2차선 도로 접 / 코너 자리
▶매가가 14억5천 → 최저가 14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062-527-7600